

2008년 서울총회 준비 위한 범출판계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는 2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총회와 국제저작권회의를 개최한다. 총회가 목적하는 바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출판인들이 기본적인 업계의 문제점들과 변화 및 도전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개방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6회 총회는 2000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제27회 총회는 2004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28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개최지는 주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76년에, 인도가 1992년에 개최했다. 2008년에 서울에서 국제출판협회 총회를 개최하면 아시아지역 내에서는 세 번째 개최지가 된다.

IPA 사무국과 독일서적상연합회의 공동주최로 2004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PA 총회에는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대회가 이양 등 2008년 IPA 서울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적극적인 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출판계 인사들의 참가가 요청된다. 이전 총회 등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2008년 IPA 서울총회를 훌륭하게 치러내야 할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2004년 독일 베를린 IPA 총회 참가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차기총회에 대한 홍보 브로셔와 기본계획서, 예산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IPA측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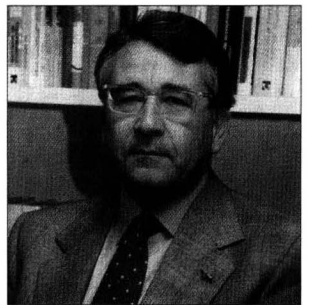
2008년 IPA 서울총회는 유치 자체로 인한 정보 획득, 고용창출, 외화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및 다른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등의 기대효과 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또한, 국내 출판계의 기대효과로는 국제 출판계와의 정보교환 및 선진사례 획득과 교류를 통한 국가간, 지역간, 개인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출판계의 세계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총회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홍보, 재무, 수송, 숙박 및 프로그램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주안점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지역간 문제와 저작권 분쟁의 중재역할이다. 그동안의 IPA 총회는 대부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8년 총회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과 아시아지역 출판인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부각하여야 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나라 및 지역과 관련한 의제와 문제점, 출판환경의 특성에 대한 실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 재고이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가 일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있음을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실력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컴퓨터의 빠른 보급과 전자미디어가 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출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의 시대에 있어서의 독서진흥과 교육관련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고도의 가치사슬을 수반하는 산업이다.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출판이 되면,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잡지로의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캐릭터 산업 등 그 사업영역을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넷째, 출판의 자유와 출판유통의 주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아직 4년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향후의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현실해야 한다. **출판**

안준모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는 1896년 파리에서 창설되어 현재 65개국의 78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PA의 목적은 출판과 도서의 기본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자국 및 국제권리를 존중하고, 방해받지 않고 작품을 창작·배포하는 출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권리를 제한하는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IPA는 국제연합에서 인정된 비정부 단체이며 지적 소유권과 도서 및 관련 자료의 유통에 관한 국제법, 조약, 협정, 의정서, 규정을 다루는 회의에 참가하여 전 세계 출판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IPA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저작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법을 제정이다. 저작권 절차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들이 도서나 음악, 유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PA는 이러한 표준들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PA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회장은 국제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회장은 IPA를 대표하고 국제위원회와 상임이사국회의에서 의장을 한다. 부회장과 지역 부회장들은 IPA의 목적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분과와 지역그룹의 사업을 관리한다. 상임이사국회의는 회장을 보좌하여 운영절차, 계획, 예산, 정책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국제위원회가 승인한다. 2004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출판협회 개최 전에 새로운 IPA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국제출판협회 회장 (Pere Vincens, President of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2004 IPA 베를린총회 주요 일정

6월 21일에는 오전 9시에 개막식이 거행되며, 이어서 1)출판의 자유 2)인터넷환경이 지구촌의 독자를 만들어 내는가 3)교육에서의 도서의 역할 4)개도국의 출판 5)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의 관계 6)출판의 다양화 - 아동출판, 학술도서의 미래, 도서일반무역, 문학도서출판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의가 개최되며, 저녁 8시에는 살로텐부르크궁에서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2일에는 1)출판계의 새로운 경쟁자 2)경쟁과 협동의 새로운 플랫폼 3)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에이전트 4)도서판매의 미래 5)21세기의 출판마케팅 6)도서관 등 출판사의 파트너 기관 7)해외유통 8)도서전시회 9)특수제작의 조건 10)전자출판 등의 주제로 회의가 계속되며, 저녁 8시에는 국립오페라극장 문터덴덴에서 사교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3일에는 포츠담으로의 1일 여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독일 연방 위무성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4일에는 1)미래의 저작권의 중요성, 2)정보사슬에서의 파트너간의 새로운 역할, 3)문화공생의 도구로서의 도서와 문화 사이의 이해증진을 주제로 회의가 계속되며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개최되는 폐막식에서 결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서 저녁 8시에는 환송연이 마련된다.